



4면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본격'

# 전주매일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음 8월 22일) 제33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종자가 미래'... 국제종자박람회 개막

7일까지 김제서 열려  
89개 기업·기관 참여  
총 489품종 선보여  
75억 수출계약 목표



다함께 '치즈' 임실N치즈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천만송이 국화꽃을 배경으로 50kg 대형숙성치즈를 선보이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는 6일부터 9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전북도는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한층 농식품부 차관 정성주 김제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국제종자박람회'를 연다. (관련사진 3면)

올해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육종 우수품종의 수출 및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 분야 국내 유일하게 개최되는 박람회로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이번 박람회에는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Seed, Blooming Tomorrow)'라는 주제로 종자의 중요성과 무한한 가치를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와 산업 박람회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 종자 기업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의 기업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따라서 이번 박람회에는 89개 기업(종자기업 34, 전후방 기업 30),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총 489품종을 전시하며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현장에서 수출상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 박람회는 3만5,000여 명이 방문했고, 해외바이어 18개국 66명과 수출상담회를 가져 71억원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는 75억원의 수출계약과 방문객 5만명이 목표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학술행사 및 육

종기술 설명회가 5~6일 이틀간 개최되며, 전시포는 종자기업 출품 품종·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품종·유관기관에서 개발한 우수품종을 직접 재배해 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다양한 작물과 품종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구성됐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종자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7회째 맞는 국제종자박람회가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김제=곽노태 기자

## '비빔 is · 전주미로'

전주비빔밥축제, 오늘부터 9일까지  
전주페스타 오픈링 축제와 함께 진행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축제로 준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축제가 전주비빔밥을 비롯한 다채로운 음식의 향연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전주시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비빔 is · 전주미로(味路)'를 주제로 한 2023 전주비빔밥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맛과 멋이 있는 전주 대표음식축제'로 진행되며, 무엇보다 '맛'에 집중해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전주페스타 2023'의 오픈링 축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비빔밥을 비롯한 글로벌 미식도시 전주의 우수한 음식 콘텐츠와 더불어 식문화를 기반으로 구성된 15여 개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비빔밥축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대형비빔밥 퍼포먼스는 축제 둘째 날인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매일 펼쳐진다.

이렇게 비벼진 맛있는 대형 전주

비빔밥은 행사장을 찾은 6,000여명의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셋째 날 대형비빔밥 퍼포먼스의 경우 비빔밥축제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에서는 △전주의 15개 자생단체와 20여 개 맛집들이 참여하는 '전주음식 테마존'과 '전주음식 가뭇존' △전주음식명인 등의 비빔을 배울 수 있는 '전주명인 쿠킹클래스' △연극인들이 관객과 함께 비빔을 소재로 한 놀이인 '비빔마당놀이' 등 15여 개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을 예정이다.

장예숙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올해 축제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축제이자, ESG 실천을 위해 전 행사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지역주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전주비빔밥 축제에 참여해 전주의 맛과 문화를 즐기시고, 지역 상생과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 취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한지로 잇고, 미래로 세계로'... 7~9일 국제한지산업대전

산업·교류·소통·참여 등 4가지 테마바탕  
동아시아 종이문화특별전과 함께 풍성하게 개최  
내일 개막행사서 이색 미술 퍼포먼스 등 다채



한지산업대전 포스터

참여 패션쇼 △전북무형문화재 색지장 김혜미자 특별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지와의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다.

특히, 사진 공모를 통해 마감한 한지미술공모전

은 8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돼 축제의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라는 테마는 한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지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탁본뜨기 △목판인쇄 △한지공예 △전통놀이 △한지연 만들기 등이 마련됐다.

한편 7일 오후 6시 전당 야외마당에 열리는 개막행사는 어린이미술공모전 시상식과 이색 미술 퍼포먼스, 한지의 미래 비전을 밝히는 동아시아 종이문화 패션쇼 등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재단 원장은 "한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 그리고 산업적 요소를 가미해 새롭게 발돋움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축제 공식 누리집(jhanji.or.kr) 또는 국제한지산업대전TF팀(281-15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한글날 연휴 관계로 10월 9일까지 신문 쉽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 깊어가는 가을 노을맛집 부안으로 초대합니다.

**곰소젓갈축제**  
2023. 10.6.~10.8.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일원

**붉은노을축제**  
2023. 10.13.~10.15.  
변산해수욕장 일원

**부안문화재야행**  
2023. 10.20.~10.21.  
부안군청 및 부안동서남문안당산